

충분한 자체강의 · 체계적인 학생지원 · 전담 조직 필요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융합전공 7년, 현황 점검

1회: 융합전공, 무엇이 문제인가

2회: 융합전공, 타 대학 우수 사례

지난 1회에선 융합전공 문제점으로 자체 개설 강의 수 부족, 수강 신청의 어려움, 취업 연계 부실을 지적했다. 2회 차에선 융합전공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타 대학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균 자체 개설 강의 수가 많은 서울대, 해외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외대 학생 지원 시스템, 독립된 융합전공 사업단을 마련한 명지대 사례를 살펴봤다.

자체 개설 강의 늘리기 위해선 관련 이수 규정 마련 필요

서울대는 11개 연합전공을 운영 중이며 모든 연합전공의 자체 개설 강의 수가 7개 이상으로 많은 편이다. 이는 자체 개설 강의 수를 제외한 타 학과 인정 학점에 제한을 둔 까닭이다.

서울대 연합전공은 우리학교와 동일하게 자체 개설 강의, 소속 학과 강의, 참여 학과 강의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소속 학과와 참여 학과 과목의 이수 학점에 제한을 뒀 자체 개설 강의 이수 학점을 높였다.

서울대 연합전공 이수규정 제3장 제18조에 따르면 연합전공 이수 시, 소속 학과에서 연합전공에 제공한 공통교과목은 9학점까지, 소속 학과와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서 공

서울대

- 자체 개설 강의 제외한 타 학과 인정 학점 제한 관련 이수 규정 존재
- 모든 연합전공 자체 개설 강의 수 7개 이상
- 학생 상담 · 지원 위한 '전공설계지원센터' 운영

한국외대

- EU 융합전공: 1:1 상담 카톡방 마련, 1:1 학생 관리 운영
- BRICs 융합전공: 펠로우십(국외교류) 운영

명지대

- 빅데이터 관련 융합전공 과정과 비교과 활동 지원하는 'ABI-X' 사업단 운영

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 교과목은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한다. 즉, 자체 개설 강의를 제외한 타 강의의 학점 인정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자체 개설 강의 수가 많아졌다. 특히, 환경경영학 연합전공의 경우 13개, 계산과학 연합전공의 경우 9개다.

그러나 우리학교 융합전공 운영 지침 제6조 5항에 따르면 융합전공 전공교과목(자체 개설 강의)은 최소 2과목 이상 최대 5과목까지 신설해 운영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융합전공 자체 개설 강의 수는 1~2개에 불과했다. 심지어 글로벌 문화기술 융합전공 자체 개설 강의는 0개였다.

취업 연계를 위한 체계적인 학생 지원 이뤄져야

한국외대 EU융합전공과 BRICs 융합전공은 우리학교 글로벌 엔지니어링 융합전공과 유사하다. 세 학과 모두 해외 전문 인력 양성을 목

표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외대 두 융합전공은 1:1 학생 관리·상담과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다.

한국외대 EU융합전공은 담당 교수와의 1:1 카톡방과 1:1 학생 관리를 운영 중이다. EU전공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주임교수, 과목 담당교수와 기업 인턴, 취업, 유학 자소서 첨삭 및 로드맵 상담이 가능하다.

EU융합전공 행정실 소속 EU연구실 최지원 연구원은 “학생이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질문을 담당 교수님께 편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의 소통을 위해 1:1 카톡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 학기 개강 후에 재학생 명단을 확인해 졸업예정자 학생을 우선 파악한 후 해당 학생이 모든 교과과정을 문제없이 끝내고 있는지 확인한다”며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 중 EU융합전공과 연계성이 있는 과목을 이중 전공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졸업 과정에서 문제를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제 학술 대회 개최, 해외 연구 기관 및 타 대학과의 MOU 체결,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학생 진로 계획에 도움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외대 BRICs 융합전공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지역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이다. 해당 전공에서는 펠로우십(국외교류)을 운영 중이며 융합전공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지원을 받으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BRICs 융합전공을 복수 전공 중인 양해원 씨는 펠로우십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브릭스 지역에 파견돼 해당 지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뿐더러 해당 지역과 교류도 가능해 취업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융합전공 지원 위한 사업단, 센터 등 운영 필요

우리학교의 융합전공은 주관 학과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대와 명지대는 사업단과 전담 센터를 따로 마련해 융합전공 운영과 학생 지원을 체계적으로 담당한다.

서울대는 학생 스스로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공설계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공설계에는 연합전공 외에도 연계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이 포함된다. 해당 센터에서 학생의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전공 설계 간담회와 전공 탐색 박람회 등을 주최한다.

서울대 전공설계지원센터 행정실 문혜민 씨는 “학생 개인 관심사와 학습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와 상담을 제공해 전공 선택을 지원한다”며 “전공 결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문 간 융합 교육 이해를 도와 다전공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에 대한 학생 수요가 꾸준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명지대는 빅데이터 관련 연계전공을 지원하는 ABI-X 사업단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단은 융합전공 과정과 비교과 활동을 지원한다. 경진대회 참여 및 개최, 워크숍 참여, 특강 개최, 장학금 수여 등이 주된 업무다.

명지대 ABI-X 사업단 소속 권신 씨는 “공통 소프트웨어 도구 교과목을 매 학기 운영해 AI, 빅데이터 관련 내용을 처음 접하는 학생도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제공한다”며 “관련 분야 현직 교·강사를 초빙해 AI·데이터사이언스 워크숍, AI·빅데이터·ICT 관련 취업 및 최신기술 특강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정원내 신(편)입학 모집

■ 온라인 원서접수 · 서류제출 :

2024.10.14(월) 10:00 ~ 21(월) 17:00까지

■ 전형일 : 2024.11.23(토)

■ 합격자 발표 : 2024.12.6(금) 15:00

■ 합격자 등록 : 2025.1.8(수) 10:00 ~ 10(금) 16:00 까지

※입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공지사항 참고

※문의: 입학처(1544-2828)

찾았다!
내가 꿈꾸던
대학

